

이덕일의 '역사의 창'



남한의 역사학, 북한의 역사학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식민사관의 핵심은 한국사의 시간과 공간을 축소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조 단군을 부인하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가짜라고 주장해 반만년 한국사를 1500년 역사로 축소시켰다. 대륙성과 해양성의 역사에서 대륙과 해양을 잘라내 반도사의 틀에 가두었다. 그나마 반도의 북쪽은 '한사군'이란 중국의 식민지, 남쪽은 '임나일본부'란 일본의 식민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일제의 식민지가 된 것은 한국사의 필연이란 논리였다.

그렇게 한사군을 한반도 북부에 설치하고 그 핵심인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낙랑군=평양설'을 유포시켰다. 그러나 중국의 모든 고대 사료는 낙랑군이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고대 요동에 있었다는 '낙랑군=요동설'을 말하고 있다. 남한 강단사학계는 광복 후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 차례의 학술토론회도 없이 '낙랑=평양설'이 아니라 '평양'이라면서 학생들에게 외우라고 강요했다. '낙랑군=평양설'이 일체의 사료적 근거가 없는 조선총독부의 정치 선전이라는 비판이 거

세지자 21세기 남한 강단사학계는 반성대신 역습을 택했다.

2017년 한때 진보를 표방했던 '역사비평'은 이른바 '나이는 젊은 역사학자들'을 대거 동원해 '낙랑=평양설'을 주창했고, 조선일보의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칭찬해 주었다. 한겨레·경향신문 등이 이에 가세했고, 한국일보는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우리(무서운 아이들)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100년 전에 이미 논증이 다 끝났다.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2017년 6월 5일)고 힘을 실어 주었다.

북한학계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무서운 아이들' 중 한 명인 안정준은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굴한 낙랑고분의 수는 1900년대 중반까지 무려 3000기에 달한다. 현재 우리가 아는 낙랑군 관련 유적의 대다수는 일제 시기가 아닌 해방 이후에 발굴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국고대사와 사이버역사학, 역사비평사, 2017)라고 단언했다. 북한도 '낙랑군=평양설'이라는 것이다.

'한겨레 21'의 전 편집장 김윤형은 '국

똥 3각연대'라는 칼럼에서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서 진행된 고고학 발굴 결과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에 2600여 기의 낙랑고분이 확인됩니다. 옛 사서의 기록과 이성과를 근거로 한국의 고대 사학자들은 대부분 낙랑군의 위치를 평양 인근으로 부정합니다"라고 가세했다. 북한학계도 '낙랑군=평양설'이라는 것이다.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다. 북한 학자 리순진은 거꾸로 "지난 시기 일제 어용사들과 봉건 시대주의 사가들의 력사 위조 행위로 만들어진 것이 '한나라 낙랑군 재평양설'이다"라고 비판했다. 리순은 해방 후 약 3000기의 무덤을 발굴한 결과 한나라 무덤은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남한의 강단사학자와 언론들은 북한학계도 '낙랑군=평양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북한학계는 광복 직후부터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전개했다. 문헌 사학자들은 주로 '낙랑군=요동설'을 지지했고 고고학자 일부는 '낙랑군=평양설'을 지지했다. 열민 토론회 도중인 1958년 경북 학자 리지린은 북경대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서 고조선사를 연구했고, 1961년 9월 경 북한에서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고조선 연구'(1962년)가 출간되면서 북한은 '낙랑군=요동설'로 정리되었다. 문헌 사료는 물론 만주의 여러 유적·유물도 '낙랑군=요동설'을 말하는 판국에 '낙랑군=평양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다.

그러나 남한 강단사학계와 일부 언론은 21세기 백주 대낮에 북한학계도 '낙랑군=평양설'로 정리되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낙랑군=요동설'을 주장하는 남한 학자들을 '유사·사이비 역사학자'라고 매도하는 매카시 사냥을 일삼았다. 여기에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이른바 진보 언론까지 가세해 남한 식민사학의 막강한 카르텔을 입증했다. 북한의 역사학도 물론 문제는 있다. 그러나 북한 바로 알기는 북한의 역사학 바로 알기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남한 강단사학이 잘 말해 주고 있다.

<한가람역사문화소장>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료칼럼

주걱턱의 스트레스



국민석 전남대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이 과정에서 수술에 맞게 치아를 배열하면서 외모가 일시적으로 더 나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마무리 교정'으로 단축된 선수술 방법이 고안되었다. 선수술 방법은 기존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환자의 외모를 변화시킬 수 있다. 두 번의 긴 교정기간 동안 환자가 이종으로 고생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일시적으로 외모가 나빠지는 시기도 없다.

기존 방법은 수술 전 교정 치료를 약 1년~1년6개월 정도 진행한다. 수술 전 교정 치료로 뼈뿔뿔한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들고, 위·아래 치아들을 각각의 턱뼈에 대해 올바른 위치로 이동시키며, 수술 후 위·아래 치아가 잘 교합될 수 있도록 교합을 맞춘다.

턱교정 수술은 수술 전날 입원해 수술 한 뒤 보통 3~4일 후 퇴원한다. 수술은 교정과의 구강악안면외과 협진을 통해 계획한대로 구강악안면외과 의사가 수술을 시행한다. 수술 후 교정 치료는 약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위·아래

치아가 더 잘 맞물리도록 하고 좀 더 아름다운 외모를 지닐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이에 비해 선수술 방법의 경우 수술 전 교정 치료 없이 턱교정 수술을 먼저하고, 이후 교정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수술 후 교정 치료는 일반적인 수술교정으로 치료한 경우에 비하여 더 자주 병원을 찾아 수술 후 안정성을 평가하며 진행하게 된다.

선수술이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술 후 치아가 어떻게 맞물릴지에 대해 분석하기 힘들고, 수술 후 일시적으로 뼈뿔어지거나 잘 물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숙련된 전문가에 의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수술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하지만 선수술의 경우 수술 전 교정기를 통해 줄일 수 있어 전체 치료기간이 단축되고, 수술 후 개선된 근육과 골의 관계 하에서 교정 치료를 진행한다.

일반적인 턱교정 수술을 하는 경우 틀

어진 턱 뼈와 치아 간의 관계를 수술에 맞게 교정하는 과정에서 아래 입이 보다 튀어나오게 되거나 들어가게 된다. 외모가 일시적으로 더 안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선수술의 경우 이러한 과정 없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어 이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치아 이동이 훨씬 수월하다.

전남대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및 교정과는 선수술 후 치아-골격 관계의 예측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임상에 적용하여 훌륭한 결과를 얻고 있다. 또한 현재는 거의 모든 환자에 대해 선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많은 환자들이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와 씹기가 힘들다는 점을 호소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정과정, 외과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회사원들이나 외부 활동이 많은 사람과 같이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외적, 기능적 변화를 원하는 경우는 이러한 선수술 후교정 방법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

기고

호남 의병 정신의 불꽃



범기철 호남의병연구소장

열한 싸움을 벌였다. 당시 전투로 고경명 장군과 유평로 장군 등이 순절했지만 호남 각지에서 2차, 3차 의병이 봉기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전국적 의병 활동을 주도하는데 앞장섰다.

KBS 역사스페셜팀은 임진왜란 당시 최초 의병장은 의령의 광재우 장군보다 이를 먼저 봉기한 유평로이며, 전국적 의병 활동을 주도한 호남이 왜란 승리의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조명해 주었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에 조선 정부의 무능이 도를 넘고 국토 방위에 소홀해 외침을 받아 속절없이 무너져갔으나 호남이, 호남인들이 장의 의병군을 조직, 전국적 활동으로 일본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해냈던 것이다.

호남의 청년들은 항도 방위를 위해 전라좌수사 이순신 제독이 이끄는 해전에 참가했고, 육·해군을 포함해 조선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권율 장군 휘하의 군영으로 달려나갔다. 권율 장군은 호남군을 이끌고 서울까지 진격, 마침내 행주산성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일본군을 격멸시켰고, 패배한 일본군들은 남으로, 대마도를 거쳐 나고야까지 도망갔던 것이다. 완도 고금도에 3도 수군사령부를 설치한 이순신 제독은 유능한 호남 참모들과 호남인들의 협조로 육포해전, 사천해전, 한산도대첩, 명랑대첩, 노랑해전까

지 연전연승해 호남의 바다, 충청의 바다, 영남의 바다를 수복했던 것이다.

한편 김천일, 장운, 황경희 등 호남 의병장들은 영남에서 호남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되는 진주성에 방어진지를 구축, 일본군을 막았으며, 화산 출신의 의병장 최경희의 부인이었던 호남 출신 의인 논개는 일본 장군을 겨냥고 진주 남강에 의로운 정신으로 투신, 순절했다. 바다에서 육지에서 다 망해 가던 조선을 되찾기까지 호남인들은 군사가 되어 싸우고, 곡식을 모으고, 갑을 버리고, 총포를 만들었고, 호남의 여성들은 화살을 깎고, 군복을 지어 서해 뱃길 따라 한강까지, 대동강의 주까지 끊임없이 군수 물자를 공급했다. 행주대첩을 맞았던 그 치열한 전쟁터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보급했다.

"호남이 없다면 나라도 없다"는 충무공 이순신의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하게 호남 땅과 민중의 마음에 살아 숨 쉬는 것이다. 정유재란 때 일본군이 세 겹으로 포위하여 토끼몰이식 도벌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육한 이후 호남이 똑똑한 남자가 없어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피해를 당했다.

호남 의병 정신은 조선이 국권을 상실했을 때에도 전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저항한 한말 의병으로 이어졌다. 그 후 광주 학생독립운동을 거쳐 광주와 마산에서

일어난 3·15 의거로 4·19혁명을 맞았고 박정희와 전두환 등 군사독재권력에 맞서 의병처럼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 직선제를 쟁취하는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5·18 광주항쟁'으로 대변되는, 민족 자주와 민주 항쟁의 빛이 되었다.

이러한 눈물겨운 역사의 행적을 어찌 잊을 수 있던 말인가?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호남에는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의병 역사 기념관'하나 없다. 충장축제는 있어도 김덕령 장군은 없고 금남로는 있어도 정충신 장군을 모르고 사는 우리 호남·광남인들의 현실이다.

지난 2015년 경북 의령에서 행해진 의병의 날 기념식을 보고 KBS역사 스페셜과 오버랩되면서 충격을 받았다. 그 후 호남의병연구소를 4·19 통일외병대 김영용 의병장과 함께 설립한 후 수차례 호남 정신과 의병에 관한 강연회를 가졌다.

의병 정신은 민족의 뿌리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호남의 살신성인(殺身成仁), 사생취의(捨生取義) 정신을 본받아 나라를 세우게 바뀌거나 민족 번영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호남인들은 유서 깊은 의항(義鄕)에서 살아가며 나라와 민족 전체가 본받아야 할 호남 정신을 세계의 평화 정신으로 선양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社說

여야 공약 경쟁 돌입...정책 선거로 이어지길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당내 경선과 후보 선정에 치중했던 여야 각 정당이 광주·전남의 미래 비전과 청사진을 담은 정책을 제시하면서 표심잡기 경쟁에 시동을 건 것이다.

현재까지 여야 정당이 제시한 주요 공약은 광주의 경우 5·18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응축된 민주·인권·평화의 '광주 정신 계승'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남은 급속한 고령화 및 인구 감소의 해법을 제시하거나 농업·농촌 활성화 대책을 담은 공약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광주 공약으로 광주 정신 계승과 친환경 자동차 생산단지 조성,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정상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전국 확산 등을 내놓았다. 전남을 겨냥해서는 서남권 해조류 클러스터, 조선산업 특화 육성, 철도 차량 정비단 유치 등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 일자리 창출, 청년이 광주의 미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호남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 등 7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광주 공약으로 청년부시장제와 노동권 신설, 농민 기본소득 도입, 도시공원 단계적 매입 등을, 전남에는 인구 감소 및 비정규직 해결, 공공의료 확충 등을 내놓았다. 민주당도 노동 존중 지방자치, 농산물 최저가 보장, 상생의 지역 경제, 복지 확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후보 등록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각 정당이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경쟁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공약도 적지 않다. 남의 기간 매니페스토 원칙에 입각해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추진 일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도 이들 공약을 꼼꼼히 살펴 정책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겠다.

잇을 만하면 다시 터지는 '살충제 계란' 파동

나주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정부와 전남도는 해당 농가가 생산한 계란의 긴급 회수와 폐기에 나섰다. 소비자들은 지난해 8월 전국을 휩쓴 '살충제 계란' 공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22일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나주시 공산면 한 산란계 농가가 생산한 난각코드 'SR8MD'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살포이) 0.07mg/kg 검출됐다. 이 살충제 성분의 기준치는 0.02mg/kg인데, 기준치를 3.5배 초과한 것이다. 해당 농가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농장으로, 산란계 4만 마리를 사육하며 하루 평균 2만4000여 개의 계란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즉각 해당 농가의 계란을 회수하고, 규제 검사를 강화했다. 특히 해당 농가가 생산한 계란 45일분 110만 개의 유통 과정을 추적해 긴급

회수·폐기에 나섰다. 110만 개 중 25만 개는 농가에서 보관 중이지만 나머지 80여 만 개는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살충제 계란'이 산란계 농가 일제 검사를 마친 5개 농가 중 1곳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으로 검사하게 될 101개 농가 가운데 추가로 살충제가 검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특히 계란은 모든 음식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국민 먹거리인 만큼 피부로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당국은 차체에 밀집 사육 환경에서부터 친환경 인증제까지, 모든 먹거리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밀집 사육이 존재하는 한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는 살충제 계란 파동은 언제든 다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無 等 鼓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약연은 9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과 죽음이 시발점이었다. 정권 초기 무난한 관계로 시작한 MB는 2008년 광주병 사태를 계기로 노 전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태광산업 박연차 회장을 압박한 끝에 64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 가족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구속했다. 관건은 돈 전달 사실을 노 전 대통령에 알렸느냐 여부였는데 검찰은 박 회장의 진술밖에 없는데도 가족들에 이어 2009년 4월 30일

그날만큼 내가 마지막 비서실장을 했던 게 후회된 적이 없었다"고 솔직했다. 9년 만인 지난 3월 22일 MB가 110억 원대 뇌물수수과 350억 원대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운명은 바뀌었다. 그런데 기묘한 우연이 발생했다. MB가 구속된 지 62일 만인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선 것인데 이날은 노 전 대통이 사망한 날로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9주기 추모식과 시간도 겹쳤다.

MB가 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심지어 언론에 '노두렁 시계' 등 민감한 사안을 흘려 속칭 망신 주기식 수사로 압박했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은 5월 23일 투신으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조사에 입회했던 문 대통령은 '운명'이란 책에서 "노 대통령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나 진배없었다"고 했다. 장례식 때는 상주 역할을 맡아 시신 확인부터 서거 발표까지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았다. 문 대통령은 장례식 날을 가리켜 "내 생애 가장 긴 하루였다.

기묘한 우연

MB가 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만 4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출두한 곳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정확히 1년 전인 5월 23일 이곳에 썼는데 재판 시간은 오전 10시였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417호 법정이 서울고법·지법에서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MB의 첫 재판 일도 노 전 대통령 서거일과 같은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묘하다. /정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